

보다 투명하게, 보다 가깝게

사회복지분야 투명사회협약 체결

보건복지부는 지난 10월 17일 프레스센터에서 유시민 장관 등 사회복지분야 14개 단체장이 모인 가운데 사회복지분야 투명사회협약을 체결하였다.

유시민 보건복지부 장관은 “보건복지부는 앞으로 직원의 반부패 의식을 쇄신하고 청렴도를 획기적·근원적으로 향상시키기 위한 혁신대책을 지속 추진함으로써 사회양극화·국민복지향상을 주도하는 「Clean 보건복지부」로 거듭나기 위해 최선을 다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사회복지분야 주체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해 대화와 양보로 공동목표에 합의하고 이를 사회적 약속으로 발전시킨 투명사회협약의 의미는 크다”라고 전했다.

지난 4월부터 5개월여간 복지부와 13개 참여단체가 참여하여 열띤 논의와 합의를 거쳐 확정된 사회복지분야 투명사회협약의 주요내용은 공공부문, 사회복지시설 운영의 투명성 강화, 사회복지시설 이용자 인권·직원 근무환경 개선, 사회복지단체 사회공헌 활동 촉진, 윤리경영 등 5대 실천과제를 포함 총 7장 32조로 구성되어 있다.

각 부문별 주요내용을 보면 △ 공공부문은 효과적인 부패방지체계 구축 등 각 단체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활동을 지원하고 사회복지분야의 처우 및 환경개선을 위해 적극 노력함 △ 법인 및 시설의 운영비, 후원금 등의 사용내역을 외부에 공개하고, 이사 선임 시 자격검증을 강화하며, 예·결산서 공개 등 기관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공개입찰, 청렴계약제 도입 등 기능보강사업의 투명성 강화 △ 진정함 설치, 인권침해 사례 모니터링 체계 구축 및 정기점검 등 이용자 인권개선 노력과 더불어 공개모집에 의한 직원채용, 직원 처우개선 등 근무환경 개선 △ 사회봉사단 구성·운영을 통해 헌혈, 재해구호 등 사회공헌 활동을 추진하고, 시설의 지역사회개방 등 지역복지 향상에도 노력 △ 사회복지관련단체 등의 자발적 윤리강령 제정 및 그 이행을 통한 윤리경영 강화 등이다.

또한 금번 협약이 지속적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실천협의회를 구성하여 매년 협약 이행정도를 평가하여 그 결과를 국민에게 공개하



▲ '체결식을 마치고 유시민 보건복지부 장관을 비롯한 각 단체 대표들이 포즈를 취하고 있다.

고, 협약의 내용을 사회복지 관련단체, 시민단체, 복지부 산하 소속 기관에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행사 당일에는 서울시청 광장 등 전국에서 금번 협약의 5대 실천과제 중 하나인 사회공헌활동의 일환으로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임직원, 서울 은평의 마을 등 전국 51개 복지시설 종사자 600여명이 자발적으로 헌혈에 참여함으로써 투명사회를 향한 금번 협약에 임하는 사회복지가족의 각오를 국민들에게 전하였다.

한편, 이날 협약식에서 '성립재단비리척결과사회복지사업법전문개정을위한공동투쟁단' 소속 회원 20여명이 “성립비리문제 해결 없는 사회복지분야 투명사회협약 체결식은 기만”이라며 성립재단사태 해결을 촉구하는 기습 시위를 벌여 협약식이 지연되기도 하였다.

〈협약식참가기관〉

한국사회복지사협회, 한국사회복지협의회, 한국노인복지시설협회, 한국노인종합복지관협회, 한국부랑인복지시설연합회, 한국사회복지관협회, 한국시니어클럽협회, 한국아동복지연합회, 한국자활후견기관협회, 한국장애인복지관협회, 한국장애인복지시설협회, 한국재가노인복지협회, 한국정신요양협회, 보건복지부